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

김현선·변남섭*

1. 신화와 서사시의 문제
2. 제주도 '설문대할망'과 '천지왕'의 신화사적 이해
3. 우리나라 육지부의 신화와 서사시
4. 신화와 서사시 일반화의 실마리

국문요약

신화와 서사시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둘은 전혀 다른 것이면서 동시에 동일한 것임을 거듭 일깨운다. 두 가지 갈래의 공질성과 이질성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글에서 그러한 관점의 비교론은 차후로 돌리고, 일단 신화로 전하는 여성신과 서사시로 전하는 남성신의 차별성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주도의 특수성에 입각해서 논의하고 우리나라 육지부의 신화와 서사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논의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장차 일반론을 전개하기 위한 가능성을 추론하였다.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는 주인공을 각기 달리한다. 신화 가운데 원초적 속성을 지닌 설문대할망은 제주도의 고유한 신화적 주인공이다. 여신으로 제주도를 만드는 구실을 했지만 신화적 사고가 후퇴하면서 여신성은 소거되고 이른바 소담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견주어서 제주도의 <천지왕본풀

* 경기대학교 한국동양어문학부 교수·경기대학교 박사과정.

김현선은 이 글의 제1저자로 본문 서술을 담당하였고, 변남섭은 제2저자로 참고문헌과 본문 윤문을 담당하였다.

이>에서는 남성신이 천신으로 설정되었으며, 통일적인 생각이나 원리를 드러낸다고 하겠다. 여성신에서 남성신의 대체와 변화는 매우 소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제주도에서 얻은 결과는 다른 고장에서도 유용하고 신화와 서사시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유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 가운데 긴요한 것은 바로 신화와 서사시의 결과가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제주도와 육지부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양상과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시론적인 것이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화의 시대적 전개와 통시적 의문을 가다듬자는 의미에서 일단 이 연구를 시험적으로 진행하였다. 의의와 한계를 유념하면서 이 논문은 일단 시론적 의의를 타진한다.

주제어 : 신화, 서사시, 남성신, 여성신, 본풀이

1. 신화와 서사시의 문제

제주도를 흔히 신화의 섬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풀이의 나라라고도 한다. 이 말은 각기 다른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같은 말을 뜻하기도 한다. 제주도는 본풀이의 나라이면서 신화의 섬이기도 하다고 말해도 문제는 해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말이든 제주도를 온전하게 포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에 본풀이가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주도는 신화의 섬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주도의 구전신화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이다. 이 의문을 풀고자 하면, 신화와 서사시에 관한 근본적 의문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다.

신화와 서사시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

의될 사안이고, 연구사에서도 크게 다룬 바 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온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심각하게 연구될 가치가 있으며, 논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본풀이를 신화로 연구할 것인가 아니면 서사시로 연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위의 말이 나온 것이라고 보아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막연하게 본풀이를 신화로 말해서 혼란이 더욱 커졌다. 본풀이는 서사시와 신화의 두 측면에서 문제를 삼아야 한다. 제주도는 이 때문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남아 있다.

신화와 서사시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신화와 서사시는 각기 다른 형태로 전승된다. 신화가 서사시로 전승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서사시의 전승과 신화의 전승이 각기 다르게 되어있어서 서로 비교가 필요하다. 신화와 서사시의 전승이 달라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전승의 총괄적 면모를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가 밝혀져 신화와 서사시의 일반론 이해에 기여해야 한다.

신화와 서사시의 관계가 문제로 부각된 논의는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인물은 뒤메질이다.¹⁾ 뒤메질은 신

1) Georges Dumézil, *Mythe et épopée I, L'idéologie des trois fonctions dans les épopées des peuples indo-européens*, Paris, Gallimard, 1968.

Georges Dumézil, *Mythe et épopée II, Types épiques indo-européens : un héros, un sorcier, un roi*, Paris, Gallimard, 1971.

뒤메질의 저작은 이것이 대표적이지만 현재에도 전량이 완간된 것은 아니고, 대체적인 윤곽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뒤메질의 저작 개요를 영어로 요약한 것이 있지만 완전한 소개서가 아니기도 하다. 프랑스어로 된 요약본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

C. Scott Littleton, *The new comparative mythology: An anthropological assessment of the theories of Georges Dumézil*(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Daniel Dubuisson, *Mythologies du XX siècle : Dumézil, Lévi-Strauss, Eliad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1993.

화와 서사시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둘을 구비전승과 의례 일반으로 확장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개한 바 있다. 신화와 의례의 관심을 확장하면서 이러한 이론을 창조하려 했다. 그러나 규정이 모호하고 호한한 이론의 궁극적 도달점은 비교언어학의 새로운 이해 방법이기도 했다.

뒤메질이론은 신화와 서사시의 이론을 구비해서 결국은 삼기능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삼기능체계의 요점은 주권기능, 군사신기능, 생산기능이 요점이라고 하겠는데, 이를 통해서 결국 고대인도 사회의 구조가 신화와 서사시의 문제로 귀결되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하바라다타 Mhabharatha》 서사시에 등장하는 인물의 기능적 분해와 종합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체계론을 신들의 갈래에 적용하였다. 뒤메질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해결하면서 신화와 서사시의 역사적 이해에 기여하였다.

신화와 서사시의 일반 이론에 대한 점검은 아니지만 구비서사시 일반론을 전개하면서 신화와 서사시의 상호관계를 정리한 논의가 있어서 이 역시 필요하다. 조동일은 신화와 서사시의 관계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신화와 서사시가 배타적이기도 하거나, 신화가 서사시에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이 관계 양상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펴고자 했다.²⁾ 이 점에서 신화와 서사시의 일반론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에 관한 이론 구상에 도움을 준다.

신화와 서사시 일반의 이론적 도움을 주는 글도 있어서 이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가령 파푸아뉴기니아의 솔로문제도에 있는 말레이타 섬의 부족들이 전승하는 여러 구비문학갈래에 대한 전승 일반에 대한 폭넓은

2)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7)

구비갈래에 대한 논의 역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³⁾ 핵심을 간추리자면 노래된 아니마에 animae와 이야기된 아니마에의 차이가 있다는 사례보고이다. 앞의 것은 서사시이고, 뒤의 것은 신화이다. 신성한 이야기와 일반적 이야기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는 보고라고 생각한다.

이론의 빈다한 점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서 이러한 이론적 검토는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신화와 서사시가 긴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둘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의 나라 이론은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론을 점검하기로 한다. 이론의 요점이 아는 것은 길잡이로 된다.

신화와 서사시의 관련양상을 논하는데 있어서 문제의 요점은 결국 신화와 서사시의 역사적인 관련양상을 적극적으로 재론해야 할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비전승의 역사가 과연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신화와 서사시의 관련을 정밀하게 이론화하는 과정에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2. 제주도 ‘설문대할망’과 ‘천지왕’의 신화사적 이해

제주도에 전승되는 두 가지 신화와 서사시의 사례에 주목하자. 설문대할망과 천지왕본풀이가 예증으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둘 다 세상이 생긴 내력에 대한 내용인 점에서 같으나, 별도의 전승과정을 통해서 전하는 이야기인 점에서 다르다. 공통적인 내용인데도 실제 내용

3) Ellie Köngäs Maranda, Individual and tradition, 《Folk Narrative Research》, 1974.

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주목된다. 하나는 제주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하는 것이면서 설문대할망의 죽음까지도 해명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이 처음 생긴 내력을 말한다. 세상의 창조 범위가 다르고 신의 종류가 달라서 문제이다.

설문대할망의 이야기는 말로 한다. 이야기로 전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므로 예사로운 말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예사로운 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전승의 개방성과 용이함을 담보한다. 설문대할망의 이야기는 이러한 전승의 용이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요점이다. 이에 견주어서 천지왕의 이야기는 특징하게 말미장귀로 하거나 요령을 흔들면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야기로 전하는가 노래로 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신화와 서사시의 거리가 있음이 분명하나 차별성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 내용을 누가 전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설문대할망은 제주도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지만, 지역별로 전하는 주체가 동질적이어도 내용과 이름에 차이가 생긴다.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 이야기는 오래 되었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도 상당한 부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설문대, 선무대, 설만두, 췌멩디, 설명두 등의 다양한 용어가 있었음이 확인된다.⁴⁾ 지역에 따라서 이름과 행

4) 설문대할망의 기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張漢喆이 지은 《漂海錄》에 이 비슷한 존재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或起拜漢拏而祝曰 白鹿仙子 活我活我 說麻仙婆 活我活我 盖耽拏之人 諺傳 仙翁騎白馬有漢拏之上 又傳 蓬古之初 有說麻姑 步涉西海 而海遊漢拏云 故今者所以祈活於說麻白鹿者 無所控訴而然也(初五日條)”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영조47년(1771)의 기록이니 18세기 후반의 기록이다. 장한철이 과거를 보러갔다가 표류해서 지은 것이다.

김두봉, 《제주도실기》(대판: 제주도실적연구사, 1932), 33면. 雪漫頭姑(설만두 할망)이라고 했다. ; 장주근, 《한국의 신화》(서울: 성문각, 1960), 5-9면. 설문대할망의 존재를 신화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 현용준, 《제주도전설》(서울: 서문당,

적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전승의 가변성과 지역성이 있었음을 말하는 증거이다.

천지왕은 심방들이 하는 곳의 서두에 나오는데, 이른 바 <천지왕본풀이>에 이야기가 전승된다. 일부 지역적 차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본풀이는 내용이 고착되어 전승되며 의례에서 전승되는 것이므로 전문적인 사제자가 전승하는 점에서 설문대할망의 전승과 판이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곳의 특성상 곳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세계관적 구현이므로 천지왕이 만든 세상의 과정과 아들대의 문화적 혼란을 말하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특정한 존재가 세상을 만든 점에서 같지만 신성한 내용의 정도와 질적 차이가 생겼으며, 이 차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창조의 내력을 별도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방들이 구연하는 본풀이에서 설문대할망이 흡수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전승을 통해서 제주도의 창세신화가 전승되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왜

1976), 22-26면. 지역에 따른 설문대할망의 여러 이름이 나온다. ; 현길언·현승환, 설화 : 설문대할망, 《제주의 민속》 3권(제주도: 제주도, 1995), 35-36면. ; 金榮敦·玄容駿·玄吉彦,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濟州說話集成(1)》 下卷,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705-706면. ;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탐라문화연구소, 1985, 511-512면. ; 임석재, 설문대하루방과 설문대할망,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279-280면. ; 임석재, 설문대할망,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277-279면. ; 진성기, 설문대할망,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2001. 24-26면. ; 진성기,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2001. 27-40면. ; 현용준, 선문대할망,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22-26면.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00-202면.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10면.

위의 자료를 근간으로 하면서 체계적으로 논의한 논문에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생겼는지 알기 어렵다.

설문대할망의 이야기를 본다면,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를 만든 내용은 있지 않다.⁵⁾ 애초에 제주도를 만든 사정은 배제하고, 제주도의 주변부에 관련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예사이다. 가파도나 마라도, 제주도의 긴요한 오름 등이 이에 관련한 이야기로 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되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제주도의 창조는 아니고 제주도를 기정사실화한 창조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완하고 여신이 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남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설문대할망의 이야기는 신성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설문대할망의 호기심과 함께 설문대할망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지형의 생긴 내력과 관련한 부차적 창조가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겠다. 직접 제주도를 만들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창조가 있었음을 암시하면서 거대한 여신의 행적을 이야기로 하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긴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지왕은 제주도를 만드는 것이 예시되어 있지 않다.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전체를 명시하면서 다른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이야기의 요점이라고 하겠다. 세상의 창조가 요긴하지 제주도라는 한정된 대상을 내용으로 삼지 않는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세상 전체를 지향하지 다른 작은 대상을 겨냥하지 않는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신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천지왕은 구체적인 제주도의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5) 진성기,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2001, 27-40면. 이 자료에 설문대할망과 하르방을 함께 말하고, 게다가 천지의 개별 주체로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있으면서 지상의 일에 관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 오는 일이 이룩된다. 이것이 천지왕의 행위는 지상의 총맹부인과 관련 되고,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에서 얻은 아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면서 이들이 일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이것이 천지왕과 자식인 대별왕과 소별왕의 일이 성취되도록 한다.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것 같아도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제주도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과 제주도에 전승되면서도 제주도가 아닌 우주 전체와 관련한 창조로 보편성을 지향하는 것이 설문대할망과 천지왕의 차이점이다. 게다가 여성신이 제주도의 중요한 창조와 관련한다는 점에서 천지왕은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을 실현하는 것이 이야기의 본질이라고 하겠다. 이 점에서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전승하는 이야기인 점이 분명하다.

설문대할망의 이야기는 삽화적으로 희화화된 채 전승되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면, 천지왕의 이야기는 유기적으로 신성성을 가진 채 전승되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삽화적인 내용이므로 단편적인 편린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기적인 내용이므로 체계적인 신앙의 내용으로 전승되는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설문대할망과 천지왕은 같으면서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언제 이러한 것을 하느냐 역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러운 이야기관에서 설문대할망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확인된다. 신성한 공간이 아니라 세속적인 공간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천지왕의 행적은 심방들이 곳에서 신성한 의례적 공간 속에서 하는 이야기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신성한 이야기와 세속적 이야기가 의례에서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차이를 가진다. 특히 본풀이를 예사 이야기로 하면 의의가 없다.

이야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가 문제이기도 하다. 설문대할망의 이야기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위해서 제주도의 생긴 내력을 설문대할망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지 않고 세속화시켜서 패로디하면서 이야기하여서 흥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요점이다. 신화의 본디 기능이 망각되면서 이야기가 망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풀이는 신을 위해서도 하고 청중을 위해서도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본디는 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신들이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엄격하고도 신성한 자세로 의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신성한 신을 초청하고 이들에게 굿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노래하는 일이 소중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본풀이 구연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갈래	전승 방식	전승 주체	전승자 소종래	청중	목적
설문대이야기	이야기 전승	아무나 전승	집단 내부	동질적 집단	흥미
천지왕이야기	서사시 전승	심방만 전승	집단 외부	이질적 집단	신의 영광

비교적 둘의 차이점이 명확하다. 차이점이 명확하지만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선명하게 해명된 것은 아니다. 차이에 입각한 의미 규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주도의 구비산문과 구비율문 전승의 특징은 이해되지만, 이러한 경우가 어떠한 의의가 있으며 제주도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좀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 유념하면서 자료와 사례를 확장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과 천지왕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마련된 것인데, 이들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면서 논의하여야 하는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

다. 일단 이 둘은 공시적인 각도에서 생성된 것이지만, 전혀 시대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하게 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를 달리하면서 이러한 신에 관한 이야기가 생성되었던 것이 이렇게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다.

여신은 대모신이나 지모신의 흔적이 있음을 견주어서 본다면, 여성신이 시대적으로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여성신으로 모든 창조를 해명하던 것이 가능했던 시대의 산물이 설문대할망이었다.⁶⁾ 설문대할망을 숭앙하고, 설문대할망에게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성성의 상징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신성성을 담보로 존중받던 신이 창조를 한 것은 당연하다. 이 신을 혼인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창조를 이어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설문대할망의 생산성은 신성성을 상실한 채로 전승된다. 옷으로 가릴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이 점을 말한다. 그러다 마침내 설문대할망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설정이다. 신성한 존재의 죽음이 핵심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신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신의 사망선고이므로 신화시대가 끝이 났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신성성을 거세당했다는 뜻이 된다. 그런 점에서 설문대할망의 존재는 이 신화시대를 접고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생산성이 여성성과 상통하고, 여성성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창조가 종말을 고하고 여성신이 지위를 잃고 전락한 것이다. 생산성을 포괄적으로 용납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6)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서 문제이다.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할망이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설문대할망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뒤에 부록으로 설문대할망의 자료와 설문대할망과 할망이 동시에 나오는 자료를 채록한 것을 모아놓았다. 할망과 할망이 함께 등장하는 자료가 왜 문제가 되는지 상론을 필요로 한다.

신이 도래했다는 것이 이 전환의 중요한 징표이다. 이 신의 도래가 곧 남성신이고 천상신이다. 이 존재가 곧 천지왕이다.

천지왕의 등장은 설문대할망의 소멸과 깊은 관련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제주도 사람들이 존중하는 신이 외지에서 들어온 다른 신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천지왕은 강력한 남성신의 등장을 알리는 징표이고, 남성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도되는 특징이 구현된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의 여성과 결합하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사고가 있는 것이 <천지왕본풀이>의 핵심적인 사고이다. 남성신이 곧 천신이고, 천신에 의해서 지상신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지상의 일은 천상으로 올라가서 관장되는 질서에 수렴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천지왕의 남성신이 중시된 시대로 이동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설문대할망에 해당하는 총맹부인은 생산의 신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천지왕의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특별한 권력 집단에서나 가능하다고 하겠다. 제주도의 토착세력에게 숭앙되지 않고, 이를 숭앙하는 강력한 집단이 이주하면서 들어온 것이 <천지왕본풀이>와 같은 내용이다. 이들은 주몽신화나 고구려신화의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이들 집단의 내용을 이어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었다. 설문대할망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천지왕을 숭앙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신화사적 지각변동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남성에 의해서 주도되는 신화와 여성에 의해서 주도되는 신화가 상당히 차이가 생겼을 개연성이 있다.

둘을 어떠한 각도에서 명명해야 하는지가 심각한 고민거리이다. 여성을 내세우고 중시하면서 산만하게 보여주는 것이 곧 원시신화의 특성이라고 했다. 이에 전주어서 남성을 내세우고 하늘과 바로 연결짓는 것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게 이루어졌던 시대의 산물이므로 아마도 고대시대가 되겠다.

제주도에는 여러 시대가 혼재하면서 오늘날 퇴적층처럼 남아 있다. 그것은 본풀이와 신화가 모두 말해준다. 문헌역사가 없었으므로 이를 방치하면서 논의를 미룰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본풀이가 다양하게 남아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구전역사의 재편에 따른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 그리고 본풀이와 신의 이야기를 관련지어서 논의할 때에 온전한 구도가 성립된다. 제주도에 전승되는 본풀이와 신화를 총괄적으로 구성하면 신화시대의 역사가 선명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 가) 구전신화로 전승되는 이야기 : 원시신화(설문대할망)
- 나) 곳에서 구연되는 본풀이 1 : 고대신화 1(당신본풀이)
- 다) 곳에서 구연되는 본풀이 2 : 고대신화 2(일반신본풀이)
- 라) 곳에서 구연되는 본풀이 3 : 중세신화 3(조상신본풀이)

이야기와 본풀이가 공존하면서 특정한 이야기를 본풀이로 하거나 본풀이로 전하는 것이 이야기의 일반으로 확장되지 않은 전승 규칙의 엄격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별도의 전승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종래의 연구자가 하지 않은 착안점이라고 생각한다. 전승의 일반적 법칙을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이 문제를 다른 곳과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가설이 필요하다.

가)는 그간의 논의에서 취급되지 않던 자료이다. 구전되는 희화화된 자료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상당 부분 대체되는 대안으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원시신화를 구체적으로 신령서사시와 창세서사시로 보고자 하는 견해는 매우 중요한 것

이지만 제주도의 상황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자면, 이것이 더욱 적실하게 부합될 수 있다.⁷⁾ 여성의 생산력이 문제되고, 수렵과 자연채취를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해하자면 설문대할망의 이러한 성격을 일정 부분 원시신화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원시시대를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

나)는 제주도의 토착세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지배 내력을 공고하게 예시하는 과정을 반영한 서사시와 신화가 있다. 이것이 당신본풀이이다. 당신본풀이에는 이질적인 집단의 싸움과 함께 식성갈등을 중심으로 집단의 숭앙을 요구하는 본풀이가 있게 마련이다. 당신본풀이는 모두 이러한 과정을 반영한 서사시이면서 신화라고 할 수가 있다. 특정 마을과 관계되는 내용이나, 한 마을에서 서로 다른 신앙집단이 발생해서 갈라지는 내력이 명시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마을의 생성과 마을 전체를 연대하는 통일된 집단의 내력을 말하는 점에서 원시시대가 아닌 고대시대로의 전환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다)는 나)와 다른 것으로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성립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다)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벗어나서 동아시아 전체에서 유통되는 것이면서 고대의 신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특정한 세력 가운데서도 이른 바 고구려계통의 민족 이동과 관련이 있거나 없는지 의문이 드는 본풀이이다. 일반신본풀이가 여러 유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점이 문제로 된다.

다)를 보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의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가령 <천지왕본풀이>와 같은 유례가 당신본풀이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외적으로 한 편만 있을 따름이고 보편적이지 않으며 일

7) 조동일, 위의 책. 서사시의 시대구분을 하면서 서사시와 신화의 문제를 함께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를 수렴해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반적 현상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오등동분향본풀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서로 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나)와 다)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엄격하게 다른 계통으로 추정된다.

라)는 제주도와 육지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동시에 무속의 일반화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본풀이가 성립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주로 중세시대의 남녀이합이나 특정한 곳에서 인물이 이동하는 내력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흔히 무속적 신격이 이동하는 내력과 관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고대의 잔존신격이 중세에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원시적인 여신이기도 하고, 고대적 여신이기도 하고, 때로는 중세적 신격이기도 해서 한결같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가)에서 라)까지의 지속과 변화는 신화와 본풀이에서 일어난 제주도적인 특수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미 이에 대해서 선행 연구는 상당 부분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논의에서 자료 전체를 보지 않았던 결핍된 견해와 이 자료를 시대적으로 해석하고 추론하는 견해와 이견이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 가설은 일단 신화와 서사시 전체를 아우르면서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진전된 견해이다. 본풀이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견해는 이미 상당히 일반화된 견해이다.⁸⁾ 그런데 이 세 가지 본풀이가

8) 장주근, 《한국의 신화》(서울: 성문각, 1960)

현용준, 《제주도 무속의 연구》(서울: 집문당, 1986)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장주근은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라고 구분했는데, 현용준은 이를 일반본풀이, 당본풀이, 조상본풀이 등으로 지칭했다. 그에 대해서 강정식은 이를 다

선후관계가 있는지 동시에 한 가지에서 다른 것이 파생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⁹⁾

조동일은 구비서사시 일반론을 수립하는데, 제주도가 예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원시, 고대, 중세, 이행기 서사시라는 용어로 정립하고자 했다. 문제는 하나의 당신본풀이가 때로는 원시, 고대 등에 예증으로 되고, 아울러서 일반신본풀이가 원시, 고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배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신화와 서사시의 상관성 속에서 이를 논하지 않아서 예증에 대한 풍부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납득을 할 수 없게 했다.

신을 중심으로 이해해야만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신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면서 논의를 했을 때에 설득력을 가진다.¹⁰⁾ 가)에서는 여성신이 주된 노릇을 하던 시대이고, 나)에서는 남성신과 여성신

시 원래의 용어로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등으로 재론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9) 김현선, 제주도와 아이누의 구비서사시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4집(서울: 한국구비문학회, 1997)

김현선은 상호관계를 논하면서 이를 논했다.

10) Karen Armstrong, *A History of God : the 4,000-year quest of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신의 역사), 동연, 1999.(배동희번역) 신의 내력을 규명한 책으로 태초에, 유일신, 이방인을 위한 빛, 삼위일체 : 기독교의 신, 통일 : 이슬람의 신, 철학자의 신, 신비주의자의 신, 종교개혁자의 신, 계몽주의, 신의 죽음, 신은 미래가 있는가 등을 다룬 저작이다.

Karen Armstrong, *A Short History of Myth* (카렌 암스트롱(이다희번역), 《신화의 역사》(서울: 살림, 2005) 이 책에서 시대마다 신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규명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신화를 모두 여섯 시기로 나누었다. 그것을 보이면, 구석기시대-수렵민의 신화(기원전 2만 년경에서 8000년경), 신석기시대-농경민의 신화(기원전 8000년경에서 4000년경), 초기 문명시대(기원전 4000년경에서 800년경), 기축(axial)시대(기원전 800년경에서 200년경), 탈기축(post-axial)시대(기원전 200년경에서 기원후 1500년경), 대변혁(1500년경부터 현재까지) 등으로 되어 있다.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있으나 생각을 얻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된다.

의 다툼이 일어난 시대인데, 여성이 우위를 점하던 시대이다. 다)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다툼에서 남성이 우위를 점하던 시대이다. 라)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만남과 헤어짐이 중심을 이루는 시대이고, 애정이 중시되던 시대의 반영이다. 나)와 다)가 상반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주도적인 상황의 특이한 변형이라고 생각한다.

이 견해는 조동일이 말한 바 있는 원시시대의 신령서사시와 창세서사시, 고대의 영웅서사시, 이행기의 애정서사시 등과 관련되면서도 차별화된다. 여신과 남신이 다투던 내력을 반영하면서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하는 증거이다. 실제로 동물이나 생물을 관장하던 신이 없는 단계에서 이러한 반영은 문제로 된다. 이러한 반영과 결과는 견해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우리나라 육지부의 신화와 서사시

제주도의 사례는 제주도만의 고유성이 있는 점을 말하지만 동시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이해한데 소중한 디딤돌이 된다. 다른 지역 가운데 육지부에 전승하는 신화와 서사시의 관련성을 입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같은 관점에서 신화와 서사시의 관계를 논하고,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의의가 있는지 확대·적용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 의하여 제주도의 사례가 지니는 의의를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나라 육지부의 동일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육지부에 전승하는 신화와 서사시를 이러한 각도에서 예증이 충분하게 마련된다. 유사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제주도의 일반화를 피하기로 한다. 제주도와는 다르게 육지부에서는 구비전승이나 문헌전승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문헌과 구전의 신화전승과 구전의 서사시전승을 갈라서 이를 보기로 한다.

가) 구전신화¹¹⁾

가)1 구전신화1(성모신화, 신모신화, 할머니신화) : 지리산성모, 선도성모, 운제산신모, 치술령신모, 안가닥할무이, 다자구할머니, 마고할미, 갱구할머니 등

가)2 구전신화2(거인신화) : 단군, 김수로왕과 허황후, 장길손

나) 구전서사시¹²⁾

나)1 미륵과 석가의 대결 : 창세가, 생긱, 제석본풀이

나)2 시루말

전승과정이 복잡적이기는 해도 일단 제주도에서 발견된 상황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의 경우에 문헌전승과 구전전승이 갈라져 있어서 문제가 되기는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 풍부하게 전승되는 점이 확인이 된다. 지역적인 한정성을 지니고 있지만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여성의 거인이나 위대한 신이었던 존재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그런데 가)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한다. 가령 커다란 거인의 존재가 여성만이 있지 않고, 남성신으로 된 경우가 허다하게 생긴다.¹³⁾ 남성

11)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서울: 역락, 1996)

12)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서울: 길벗, 1994)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서울: 태학사, 1999)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서울: 집문당, 2001)

13)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1997. 거인이야기의 전반적인 판도를 총괄적으로 논의한 저작이다. 이 이야기의 이면에 신화사적 위상의 변동이나 의의를 논의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바로잡고자 한다.

신의 존재로 우리는 쉽사리 예증을 들 수 있는데, 가령 거인 장길손, 단군, 김수로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와 같은 유형이나 성의 차이가 있는 인물 이야기가 있어서 문제이다.

가)1은 구전신화를 중심으로 하되, 문헌신화도 섞여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거인여신은 없이 곧 바로 이 여신들은 성모, 신모, 여산신 등으로 신격화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¹⁴⁾ 제주도와 전주에서 본다면, 이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다. 물론 특수한 사례로 지형을 창조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전반적인 성격을 여기에 묶어놓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 점에서 이 부류는 색다른 검토가 요청된다. 마고할미나 쟁구할미가 이러한 성격에 가까운 존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신은 특정하게 지형이나 지리창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한 지역의 수호신이나 생산신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신은 여성신으로 작용하고 거인의 여신이 성격적으로 변형된 것을 확인하게 된다. 거인의 여신에서 일정한 지역적 한정성을 가진 여신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점에서 원시신화에서 보이던 신격을 만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산악신앙과 여신신화가 결합하면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일정한 성취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설문대할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재론의 여지가 있다. 가령 제주도의 <오백장군> 전설이 이에 가까우며 어머니의 죽음이 남성의 아이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가)2는 구전으로 전하는 신화 가운데 남성 거인의 신화와 관련된다. 단군이나 장길손등이 벌이는 행위가 설문대할망의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이 남성거인과 여성거인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

14) 권태효, 같은 책.

다. 거인여신이 제주도에서 하는 일이 여기에서는 남성거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긴요한 차별성이 있는 셈이다. 남신과 여신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같은 행위를 성적 차이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가)2에서 남성으로 대체된 것과 여신으로 좌정하는 산신이나 성모 등이 있는 것은 일정한 함수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 여성과 남성의 주도권 다툼이 있다가 여성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으로 한정되었고, 남성신 역시 절대적인 권능을 부여받지 못한 존재들이 다른 남성신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밀려난 존재들로 거인신이 희화화되고 오늘날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남성거인의 존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나)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여기에도 심각한 지역적인 차이가 있으며, 서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대체로 굿의 서두에서 본풀이를 풀어서 하는 인물의 이야기이고 창조의 내력을 간직하고 있는 점에서 일치한다. 게다가 본풀이로 전승하는 이야기인 점에서 서로 같은 이야기인 점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본풀이의 전승은 제주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특정한 주체가 하늘에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의 여성과 혼인하고 두 명의 아들을 낳아 낳은 아이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점에서 경기도의 전승본풀이인 <시루말>과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는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이외에서는 이러한 본풀이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미륵과 석가의 이야기로 바뀌어서 전승되므로 이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풀이의 전승권역과 특정한 신화소가 심각하게 변질되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나)1과 나)2는 서로 차이가 있다. 나)1은 창세신화로 일정한 관련을 가지면서 거인신화의 일부가 잔존하고, 외래신이 들어와서 고유신을 밀어내는 형국을 하고 있다. 미륵은 거인신의 존재로 잔상을 남기고 있으며, 새로이 후래신으로 등장한 신인 석가가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면모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미륵은 남성거인신과 상통하고, 석가는 다른 천상신과 상통한다. 구전신화와 구전서사시가 뒤섞이는 복합적 현상이 관련된다. 거인신화가 구전서사시에 수용되어 공유되고 있는 것이 미륵신화라고 할 수가 있다.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가 맺는 관계가 육지부에서 신화와 서사시가 맺는 관계가 전혀 다르게 성립하면서 차별화된 점이 여기에서 확인된다. 설문대할망과 천지왕은 전혀 관계가 없으나, 육지부에서는 미륵과 석가가 서로 관련되면서 동시에 미륵과 구전으로 전하는 단군과 같은 거인신화와 복합되어 있는 점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그러한 점에서 육지에서 생긴 변화와 변이가 제주도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 점에서 이 본풀이와 이야기의 근간이 달라진 형국을 만날 수 있다.

나)2에서는 체계적인 조직화가 있는 현상이 있다. 당칠성이 매화부인과 만나서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이 각각의 판도를 다스리고 있는 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단일화한 신이 절대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점에서 나)1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나)1이 삼화적인 전개를 지낸다면, 나)2는 유기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 나)2는 남성의 권능이 구체화되던 시기에 형성된 신화임이 분명하다.

나)2와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가 일치하는 점 역시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른 바 고구려 신화와 엄격하게 대응하는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가 유사한 본풀이로 <시루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욱

커다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숭앙하는 집단, <시루말>로 구현하는 상징적인 집단, <천지왕본풀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신앙집단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본풀이를 매개로 서로 얽혀 있는 것을 이로써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2에서 겪고 있는 집단적 신의 혼란과 갈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나)1과 나)2는 이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나)1과 나)2는 어떠한 변천과 전이가 있었던 것인가 추론을 전개하기로 한다. 그것은 가)2와 나)1의 연결과정이 나)1과 나)2로 대체되는 역사의 작용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가)2가 나)1로 연계되어 신화사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즉 남성거인이 창세신화의 주체로 바뀌었다. 김쌍돌이본의 <창세가>등이 이러한 전환의 결정적 증거이다. 하늘과 땅을 밀어올리고 하늘의 해와 달을 떼어 내어서 이를 별을 만드는 행위는 남성거인인 증거이다. 비록 불교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창조를 일순간에 하나의 거인이 해결한다는 것은 동일한 사고이다.

남성거인이 구전신화와 구전서사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둘이 엄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양상에 있어서 신성성과 세속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만, 희화화된 거인신화의 소멸과정과 신성한 존재로 부각되어 있는 면모는 둘이 상반된 작용을 하면서 이야기와 본풀이로 계승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야기와 본풀이가 육지부에서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거인이 근본적인 성격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이어지고 있음은 소중하다. 추상적 사고가 아니고 거인의 화생과 창조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관념으로 존속하고 있다. 그것이 곧 가)2와 나)1의 작용양상이다.

나)1과 나)2는 본풀이에서의 전환과 변천을 암시한다. 거인의 화생과

창조라는 관념이 변화되면서 추상적 사고가 등장했다.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결합하고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신의 관념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아직 신화적이고 철학적인 보편자에 준하는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인에서 ‘천하궁당칠성’과 같은 변이가 일어난 것은 심각한 전환을 말하는 증좌이다. 거인이 당칠성으로 대체되어 나간다.

이미 나)1에서 있는 미륵과 석가의 대결은 이러한 전환이 암시되어 있다. 미륵과 석가는 거인신의 흔적이 있지만, 석가는 미륵과 같은 창조를 하는 거인의 존재가 아니다. 외래자이면서 이미 미륵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을 속임수로 빼앗는 창조만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한 창조의 과정에서 약탈은 속임수이지만 신화에서 신의 대체를 인정하는 불가피한 창조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육지부의 미륵과 석가의 대결은 신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나)2에서는 창조주로 인격적 추상화가 온전히 진행되고, 특정한 이들이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을 두고 대결하는 변환이 일어난 셈이다. 천부지모의 결합과 자식의 이야기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립되었다. 나)1에서 막연하게 일어난 창조거인이 거세되는 과정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전환하였다. 동일한 신화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제석본풀이> 유형에 나)1이 삽화적으로 끼어드는 것은 거인이야기가 삽화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하겠다. 유기적인 구성을 하는 신의 본풀이와 삽화적인 구성을 하는 신의 본풀이는 신화의 신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이이다.

가)에서 역사적인 변천이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나)에서도 심각한 변이가 있었다. 여성신이 유사한 일을 한 경우가 있어서 마고할미나 쟁구할머니가 이러한 구실을 했다. 거대한 여성신인 대

모신이 바뀌어서 특정한 산신이 되거나 여신으로 전락한 경우가 허다하고, 오히려 거인신의 창조성을 남성신이 대신하고 있는 점이 이른 바 제주도의 여성신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제주도가 있었으며 제주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근의 섬과 오름 등을 창조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육지부의 남성신과 서로 상통한다.

여성신이 한 일을 왜 남성신이 하게 되었는지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모신에서 남성신으로 대체된 것은 신화사적으로 매우 긴요한 사건인데, 여전히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전승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신으로 전환하지 않아서 소중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설문대할망의 이야기는 쟁구할머니나 마고할머니와 일부 상통하지만 제주도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이다.

또한 육지부에서 여성신은 특정한 곳에서 산신이거나 여신으로 존재 하면서 전승의 맥을 잇고 있는 점도 매우 긴밀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전승의 흔적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다. 가령 <오백장군>에서 어머니와 영실에 관한 이야기의 전승은 신화적 흔적을 가지면서 여성신으로 승화되어 있는 흔적이 남아 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다.¹⁵⁾ 어머니와 아들이 연관되어 있는 점도 특이하다.

곳에서 전승하는 본풀이는 아주 각별한 것이어서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본풀이인 <체석본풀이>에 사건의 전모가 용해되어 전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륵과 석가가 창조의 주체이면서 서로 대립적인 구실을

15) 현용준, 위의 책, 44-46면. 이 이야기는 흔히 제주도의 것으로만 되어 있는 줄 알지만 시각을 확대하면 제주도이외의 지역에서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민담화해서 전승된다.

하면서 전승되는데, 불교적인 신의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전승되는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승불교의 전파과정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전승되면서 변화되었는데, 제주도는 이 신화소의 전파나 전승에 감염되지 않고 변이가 이루어진 점에서 아주 특이한 사례이다.

대승불교의 전파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장차 크게 이룩할 연구 과제이다. 미륵과 석가가 서로 대결을 하고, 이들의 다툼에 의해서 세상의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이것이 곧 미륵과 석가의 대결핵심이다. 이 신화소는 월남, 중국, 몽골, 한국, 일본, 유구 등지에서 폭넓게 분포한다.¹⁶⁾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서로 변화하지 않은 채 전승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것이 감염되지 않은 채 이름을 달리해서 전승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육지부에서는 심각한 변이가 있지만 거의 같은 형태로 신화와 서사시의 전승이 이룩되어 있는 점이 확인된다. 본풀이에 의존하지 않고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신화적 변이가 이루어지면서 세속화되었다고 하겠다. 아울러서 본풀이는 견고하게 이어지고 전승의 변이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육지부에서도 신화와 서사시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하게 전승이 이루어진 점이 분명하다.

위에서 얻은 결과를 두고 다시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에서 얻은 결과와 합쳐서 이해하는 가설이 필요하다. 신이 달라지고 전환이 이룩된 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 구전신화로 전승되는 이야기 : 원시신화

가)1 여성거인에서 여산신 또는 여성신으로

16)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을 준비했다. 김현선, 《미륵과 석가의 대결 신화소의 분포와 변이, 그리고 의미》가 그것이다.

- 가)2 남성거인에서 남성신으로
- 나) 굿에서 구연되는 본풀이와 구전신화 1 : 고대신화 1
 - 나)1 당신본풀이
 - 나)2 당신화
- 다) 굿에서 구연되는 본풀이와 구전신화 2 : 고대신화 2
 - 다)1 거인창세신에서 창세신으로
 - 다)2 천상신으로 전환
 - 다)3 천상신에서 건국신화로
- 라) 굿에서 구연되는 본풀이와 구전신화 3 : 중세신화 3
 - 라)1 조상신의 내력 본풀이
 - 라)2 조상신화

제주도에서 얻은 결과가 육지부와 합쳐지면서 이러한 변형이 생겼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제주도에서는 본풀이가 우세하고, 구전되는 이야기가 빈약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제주도의 사례가 근본적인 문제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지부와 합쳐지면서 심각한 자료의 전환이 이룩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구전신화와 본풀이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건국신화는 특이한 변이이므로 다)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문헌에 전승되는 양상이 구전신화와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 점이 고려된다면 위의 그림에서 다)3은 소거해야 마땅하다. 라)2는 조상신화이다.¹⁷⁾ 대체로 건국신화와 일치하나 중세시대에 재창조된 신화의 성격이 강하므로 여기에 분류해서 살펴야 마땅하다.

제주도에는 신화보다 서사시가 우세하다. 육지부에서는 본풀이보다

17) 조상신화의 시대적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축적되지 않아서 문제이다. 김현선 외,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연구》, 보고서, 2006.
허경희, 《한국씨족설화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1990.

신화가 우세하다. 자료의 종합을 위해서 이러한 양상을 인정하면서 다룬다. 가)에서는 원시신화의 흔적이 제주도에서는 여성으로 되어 있다. 여성거인에서 여신에로의 전환은 제주도에서는 드물게 발견되지만, 육지부에서는 본질적으로 진행되었다. 반면에 남성거인과 남성신으로 전환하는 현상은 제주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에서는 제주도는 본풀이가 선명하고 다양하게 남아 있어서 이 문제가 제주도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남녀의 신이 서로 갈등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여신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점은 더욱 새롭게 이해해야 할 문제이다. 대신에 육지에서는 당신화들이 선명하게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를 온전하게 구조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당신화의 개별적인 업적을 받아들여 크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¹⁸⁾

다)에서는 제주도는 육지와 거의 같은 양상을 겪었지만, 왜 그러한 공질적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제주도 지배집단의 공통점 때문인지, 보편적 사고가 이룩되면서 생긴 현상인지 의문이 많다. 다)2의 천상신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의문이다. 고대신화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양상이나 실상이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남성거인의 원시신화가 전환되면서 이룩되었다. 육지부에서는 다양한 전개양상을 보이지만 본풀이는 소멸단계에 이르렀다.

18) 대표적인 연구 업적을 들면 다음과 같다. 당신화의 정체를 규명하고, 구전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모으려고 힘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왜 구전신화로만 남아있는지 근본적인 성격은 논의하지 않았다.

표인주, 《전남의 당신화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혜령, <소야 당신의 신화적 정체화와 제의의 당위성>,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유여중, <경기도 안산 갯머리 마을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세나, <괴시 마을 당신화의 성립과 변화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승철,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 민속원, 2004.

라)에서는 제주도만의 독자성이 있다. 육지에서는 구전으로 전승되는 일부 자료가 남아 있고, 모두 문헌화되었으며 중세시대에 편찬된 것이 많아서 문제이다. 자료의 실상을 감싸 안으면서 이 점을 새롭게 해명해야 하겠으나 얼마나 의의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다른 고장의 사정과 전혀 다르며, 본풀이의 특성에 입각해서 모든 문제를 창조하려는 특징이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조상신본풀이와 같은 자료는 세계적으로 평가해야 할 자료이다.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아닌 육지부에서는 다양한 자료의 실상이 보이지만, 본풀이와 이야기가 빈약하고, 시대적인 증거를 보이는 것이 미비하다. 그만큼 제주도에서는 왕성한 구비전승의 위력이 발휘되었다는 증거이다. 본풀이의 전반적인 역사적 성격을 본다면, 시대적 지속과 변화가 뚜렷하다. 이 양상을 존중하면서 자료를 다루고 입체적으로 다루었을 때에 제주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신에서 남성신으로 전환은 인간의 사고가 집약된 반영이자 변화이다. 막연하게 떡거리만을 생각할 때에는 수렵의 대상으로 또는 어로의 대상으로 동물과 어류의 영혼이 중요했다. 그런 단계를 구현하지 못한 제주도와 우리나라의 본풀이와 신화에서는 다산성과 생식력을 강조하는 면모만 나타난다. 그래서 남성신과 여성신이 긴요했다. 신을 어떻게 만들고 받들었는지 본풀이와 신화에서 문제를 삼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성신과 남성신의 문제가 소중한 내력을 가지고 있다.

본풀이와 신화는 상보적이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신이 등장하고 퇴장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신들이 등·퇴장을 거듭하면서 신들이 성적 전환을 이룩하고, 신들의 위계 변동이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시대가 구분되고, 신화의 역사적 성격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신화의 역사성을 논의하면서 지배집단의 성격 변화와 이것이 일치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인정되는 바이다. 여성의 생산성을 존중하다가 남성이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신들을 교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신화사적 전환이었다고 생각한다. 신의 역사와 신화의 역사, 그리고 신의 숭앙집단 또는 사회의 지배집단이 달라지는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에 타당하다.

4. 신화와 서사시 일반화의 실마리

제주도와 우리나라 전역의 신화와 서사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제주도의 독자성과 함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여성신과 남성신이 두 갈래로 지속된 것에 견주어서 육지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심각한 신화사적 전환과 변이 및 위계의 변질 과정으로 나타나면서 신들의 대체 과정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육지부의 이야기에서 전하는 거인신과 본풀이로 전하는 남성신이 서로 차별화되면서 동시에 둘은 서로 연결되는 점이 확인된다. 육지부에서 거인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은 두 자료인 신화와 서사시를 연결지어야만 확인되는 현상이다. 제주도에서는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분화만 있지 수용과 복합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거인여신과 창조주인 천지왕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대체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신화와 서사시가 서로 섞이지 않았으며, 별도의 전승과정 속에서 이룩되었다. 육지부와 제주도가 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민족에서는 이러한 신화와 서사시의 복합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사로 전승되는 신화

의 내용이 서사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외는 다르게 우리의 경우처럼 신화와 이야기가 각기 전승되는 경우가 있다. 신화와 서사시의 경우와 사례를 중심으로 일반론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의에서 예상되는 일반론은 두 가지가 된다. 하나는 서사시의 내용을 채우는 구비전승갈래의 일반론을 전개할 수 있다고 예견된다. 서사시의 통시적 변천에 따라서 신화, 전설, 민담 등의 내용이 흡수되면서 이러한 양상이 서사시에 흡수되어 전승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풀이의 개방성이 한층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를 전승한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제주도의 본풀이는 한층 다면적인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는 특히 이에 적절한 사례이지만, 다른 본풀이는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도의 본풀이 세 가지는 각기 상이한 차원에서 다면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가 새롭게 해명되면서 이야기와 본풀이의 다면적 관계가 해명되리라 예상된다.

제주도의 이야기와 본풀이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 전승력은 결국 본풀이 전반의 전승과 신화 전승의 차별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다른 민족의 경우에 들은 상반적인 조건 속에서 이 전승이 달라졌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본풀이는 역사적인 성격이 강한 갈래이므로 신화와 다른 본풀이 전승이 이룩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제주도의 본풀이는 두 가지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이에 대한 예증을 제공한다. 세 가지 본풀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소중한 이유를 이 때문에 거듭 다시 깨닫게 된다.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다시 증명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제주도의 본풀이 세 가지 관계가 새삼스러이 예증으로 활용되면서 세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

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된다. 하나는 세 서사시의 갈래에서 신화, 전설, 민담 가운데 신화는 섞이지 않았지만, 민담은 일반신본풀이에 섞여서 새로운 탈바꿈을 하면서 자리잡고 전승되었다.

다른 하나는 당신본풀이는 전설과 일부 섞이기는 했어도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전승되었다. 전설과 새삼스러이 달라진 점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전설은 전혀 작용하지 않으면서 집단적 동질성을 가진 사제자 전승인 당신본풀이는 새롭게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이 본풀이가 소중한 이유이다. 더구나 조상신본풀이는 민담도 아니고 더구나 전설도 아니다. 구조적으로 각별한 이야기인데 이들 관계가 선명하게 집약되지 않고 전승된다고 하겠다.

제주도는 세계의 신화와 서사시 일반론적 관계를 해명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시야를 확대하고 논의의 착목을 새롭게 하면서 이론의 일반화를 꾀하는데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자료에 파묻히면 보람을 있으나 공감 없다. 이론에 천착하면 공허해지고 자료를 돌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착상과 증명은 이론과 자료의 어름에서 항상 가깝게 지내야 한다.

참고 문헌

-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金榮敦·玄容駿·玄吉彦,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濟州說話集成(1)》 下卷,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705-706면.
- 김두봉, 《제주도실기》(대판 : 제주도실적연구사, 1932), 33면. 雪漫頭姑(설만두할망)이라고 했다.
-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탐라문화연구소, 1985, 511-512면.
- 김현선, 제주도과 아이누의 구비서사시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4집(서울: 한국구비문학회, 1997)
-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임석재, 설문대하루방과 설문대할망,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279-280면.
- 임석재, 설문대할망,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277-279면.
- 장주근, 《한국의 신화》(서울 : 성문각, 1960), 5-9면. 설문대할망의 존재를 신화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 장주근, 《한국의 신화》(서울: 성문각, 1960)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7)
- 진성기, 설문대할망,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2001. 24-26면.
- 진성기,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2001, 27-40면.
- 진성기,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2001. 27-40면.
- 허경희, 《한국씨족설화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1990.
- 현길언·현승환, 설화 : 설문대할망, 《제주의 민속》 3권(제주도: 제주도, 1995), 35-36면.
- 현용준, 《제주도 무속의 연구》(서울: 집문당, 1986)
- 현용준, 《제주도전설》(서울 : 서문당, 1976), 22-26면. 지역에 따른 설문대할망의 여러 이름이 나온다.

- 현용준, 신문대할망,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22-26면.
- 현용준 ·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00-202면.
- 현용준 ·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10면.
- Georges Dumézil, *Mythe et épopée I, L'idéologie des trois fonctions dans les épopées des peuples indo-européens*, Paris, Gallimard, 1968.
- Georges Dumézil, *Mythe et épopée II, Types épiques indo-européens : un héros, un sorcier, un roi*, Paris, Gallimard, 1971.
- C. Scott Littleton, *The new comparative mythology: An anthropological assessment of the theories of Georges Dumézil*(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 Daniel Dubuisson, *Mythologies du XXsiècle : Dumézil, Lévi-Strauss, Eliad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1993.
- Ellie Köngäs Maranda, Individual and tradition, *Folk Narrative Research*, 1974.

Abstract

A study about The Aspect and Significance of Myth
and Epic of Jeju island

Kim, Heon-Seon • Byeon, Nam-Seob*

Myth and Epic is important issue. We can often acknowledge that Its are very different but the same. This paper focus on Goddess which is handed down as Myth and God which is handed down as Epic. Jeju island has geographical and cultural features.

The main character is not the same in Mythology and Epic poetry of Jeju. SeonmoonDaeHalMang is proper to the Jeju Mythology. SeonmoonDaehalMang creat Jeju as a Goddess but The holiness had decreased That's why Mythology had degenerated into a just small story. On the contrary God CheonJiWang who is main character of Epic poetry is the heavenly gods had not decreased. The substitution Goddess has been superseded by God is very valuable feature.

This conclusion of Jeju can expand to the other regions to study about the relation between Mythology and Epic poetry. The important thing we can confirm the same pattern. but This study is not completed but trial so have several problems.

Key Words

Myth, Epic, God, Goddess, Bonpuri (oral epic about God's origin)

* Kyonggi University

교신 : 김현선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국문학과
(E-mail : kimheonseon@hanmail.net 전화 : 018-356-9108)

교신 : 변남섭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국문학과
(E-mail : sevenlaw@hanmail.net 전화 : 019-309-0205)

최초 투고일 : 2008. 7. 24

최종 접수일 : 2008. 8. 20

K C I